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과 대안



김현수 목사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총신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삼수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린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88 올림픽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¹ 벌써 3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올림픽이라는 현상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리라 생각하여 그 글을 요약한다.

I. 올림픽에 대한 여러 관점들

올림픽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표방하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이미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다 다루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올림픽에 대하여 말하는 관점들을 재평가하려고 한다.

첫째, 올림픽이 표방하는 ‘세계 평화’, ‘동서 화해’ 등을 기독교의 ‘평화’, ‘화해’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이 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는 공산권과 비공산권의 화해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런 능력을 구비했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피상적인 견해이다.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화해의 종교인가’, ‘올림픽이 근본적으로 인류의 화해 증진에 기

¹ 김현수, “88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프뉴마티코스』 2호 (1988).

‘세속인들의’ 행동에 의미와 활력을 주는,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세속화된 종교’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이 현대 올림픽을 이끌어 가는 종교적 동인이라고 생각한다.

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원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림픽을 ‘동서 화합의 대잔치’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념, 인종, 빈부, 종교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생의 의미와 희망을 제공하기에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등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올림픽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올림픽의 역사만 일별해 보아도, 24회나 개최된 지금이 처음보다 인류의 화해를 더 증진시켰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또한 성경은 화해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다.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롬 1:28-32, 3:23). 그렇기에 오직 죄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다른 지체들과 화해를 누리는 것이다(롬 5:1, 15:1-2, 엡 4:3-4). 이렇게 볼 때 위의 주장은 상당히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주장이나,

기실에 있어서는 복음의 내용을 희석시킨 것이다.

둘째,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에서는 운동권과 비슷한 논리로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올림픽을 물신화(物神化)한 자본의 논리로 설명하는 이들은 한국이 제국주의자인 미국에 의하여 분단되었으며 북한이 참가하는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분단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단순하다. 88년에 소련이나 동구권이 참가한 현실을 담아내기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공동 참여, 혹은 불참으로 인하여 우리의 분단 상황이 해소되거나 고착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가 된다.

또한 그 분석틀에도 약점이 있다. 그들은 성경에서 신학의 방법론을 찾아내려는 진지한 시도 대신에 쉽게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취하고 거기에 기독교의 옷을 입힌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사랑을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으로 국한시키거나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와 결부시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일 뿐 기독교가 동서 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로, 올림픽의 종교성에 주목하여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지모신(地母神) 숭배에 기원을 둔 올림픽 제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각처에서 선출된 남자들이 사제들 앞에서 한 달간의 엄격한 예행연습을 한 후 나체로 지모신의 제전, 즉 올림픽에 참가한 사실을 지적한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 행사였고, 올림픽 제전을 통해 젊은이들은 올림픽 종교의 신봉자로 굳어져 갔던 것이다. 그들

은 로마 시대의 올림픽이 황제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기독교인 황제인 데오도시우스에 의해 394년에 폐지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올림픽은 우상 숭배에서 기원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조금의 우상 숭배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올림픽 제전은 과거에도 단순한 우상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았고 그 시대의 사조나 정치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그 큰 줄거리는 놓치고 표면상의 몇 가지만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보다 좀 더 지지를 얻는 입장은 올림픽을 ‘전도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88서울 올림픽 당시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에서 몇몇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준비를 하였다. 모 신학 대학 학장은 이렇게 글을 썼다. “만약 사도 바울이 20세기에 살아 있다면, 그는 ‘올림픽 서신(The Epistle to the Olympians)’을 기록했을 것이다. 즉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의 교회들에게 올림픽을 최상의 선교 기회로 삼으라는 권면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기독교 사상》, 1988년 6월 호, 52-56.)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서는 배울 것이 있겠지만, 그 열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먼저 주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올림픽 서신’을 쓰지 않았고, 그 대신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10:2). 구원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올림픽 서신’ 운운하며 복음 전파만 강조한 것은 균형 잡힌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올림픽 서신을 쓰지 않은 것은 올림픽이 우상

숭배와 결부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옳지만, 현대 올림픽이 갖는 그 종교적인 성향들, 즉 스포츠의 종교적 열광성이나 후론할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등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육적’ 활동의 정당성을 오직 복음 전도라는 ‘영적’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데에서 찾는다. 그들은 신체 활동의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올림픽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성경은 단지 전도용 책자일 뿐 매일의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종교 경전인 것이다.

II. 올림픽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

이제 올림픽을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틀에 의해 분석을 하자.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Neo-Calvinist)의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적 분석틀의 기초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종교적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피조계를 창조주와 구분하고, 창조주가 피조계에 부여하신 각각의 위치를, 그 조화 있는 우주(cosmos)를 궁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조계의 일부를 신의 위치로 격상시킨 자들은 그 격상된 피조물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하여 하나의 주의(ism)에 빠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세속인들’의 행동에 의미와 활력을 주는, 또한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세속화된 종교’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에 있어서도 그 배후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활력을 제공하며,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 동인들이다.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이 현대 올림픽을 이끌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적 동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인간성 찬미를 보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이 중지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이 신과 함께 즐기는, 일종의 “인간성 찬미”의 축제가 벌어졌다. 19세기 말의 국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킬 때의 이상도 인간성 찬미의 고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었다. 진한 감동을 자아낸 개폐회식, 생동하는 육체와 그 육체를 지탱해 주는 강인한 정신력, 육체와 정신의 균형과 조화, 새로운 기록을 인간 한계의 벽을 깨뜨린 것으로 온 인류가 찬하하며 새로운 벽을 깨기 위해 전신을 내던지는 것, 함께 보고 뛰며 즐기는 것 등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찬미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성 찬미는 그 자체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다른 대상, 즉 피조물에 기대어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곧바로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롬 1:18-32). 인간의 종교적 한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성 찬미를 외치는 올림픽이 왜 종교적 성향이 강한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둘째, 상업주의를 보자. 원래 올림픽의 이상은 상업주의를 배척하고 명예와 순수성만을 숭상하는 아마추어 정신이었다. ‘최후의 아마추어’로 불리는 5대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에이버리 브런디지 위원장은 체육 관계 장학금을 받는 자의 올림픽 참가도 금함으로써 많은 원망을 듣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가 출신의 7대 위원장 후안 사마

란치는 “오늘의 스포츠는 필요 불가결하게 ‘상업화’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도 기업이 스포츠에 ‘봉사’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부언했지만, 장사꾼의 치부책에는 봉사와 이용의 경계선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올림픽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올림픽 위원회는 오류 마크, 휘장 등 올림픽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을 공식업체나 후원업체에 경매 처분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국가나 기업체에서 내건 막대한 포상금이 그 동기가 되어 경기에 참여한다. 올림픽의 배후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들이고, 참가하는 선수들 역시,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황금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면, 이는 아마추어 정신을 주장하는 올림픽이 상업주의의 지배하에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셋째, 올림픽은 또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인해 몸값이 올리고 있다. 비근한 예로,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주동한 것도 보불전쟁(1870년)에서 패배한 프랑스 국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되었다. 연대로는 조금 앞서지만, 1807년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독일에서 체조 운동을 일으켰던 프레드릭 루디 안은 단순한 체조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폴레옹에 대항할 만한 독일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했었다. 체육 활동의 의미와 활력을 민족주의에서 찾고,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구호 아래 민족 대중의 체력과 이념을 동원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전반을 통해 흥기했던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 올림픽의 부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예로 베를린 올림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올림픽의 기본 방향은 바로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이었고, 진행의 모든 초점이 히틀러의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 등 나찌의 선전에 맞추어졌었다.

III. 기독교적 해결책

‘종교적 전제’와 ‘피조계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상’으로 구성된 ‘기독교적 틀’에 의하면 올림픽의 근본 문제는 그릇된 신앙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해결책으로 그릇된 신앙을 바꾸고 피조계에 대한 바른 상을 회복하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올림픽이라는 정치·경제적 함축이 있는 문제를 논하면서 신앙을 바꾸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둘째, 올림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논하면서 신앙의 변화라는 개인적 차원의 대안만을 제시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첫째의 비판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한 이원론적인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앙과 현실은 이원론적으로 유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의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정치·경제적 함축이 있는 사건 역시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동인 - 인간성 찬미, 상업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 에 의해 방향 지워진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독교의 회심이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 회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다른 종교의 경우처럼 종교적인 개인주의를 장려하기 위한 것

악한 자는 올림픽이라는 것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따라서 우리의 신령한 싸움은
올림픽에까지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것이다.

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약간 단순화하여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신앙 고백에 관한 한,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후의 교회 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증시하는 교회 공동체는 올림픽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다운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가 사회 제도의 변혁을 위해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나 '다른 방식'에 의해서이다.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릇된 신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에 대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포괄적인 삶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올림픽에 대해서도, 교회가 올림픽을 지배하는 정신과 세속화된 종교 등에 정반대되는 원리에 의해 움직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환연히 증시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면 그것이 곧 그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은 올림픽의 문제점을 상쇄하고자 남을만한 풍요로운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면, 이미 산 위의 동리, 등경 위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마 5:13-16). 이런 터 위에서 체육 등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나와 '대체 놀이 공동체'를 선도해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빛은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혹자는 매우 온건하고 지극히 개량주의적 대안이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견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뿌리(radix)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과격하다(radical). 사람들은 몬트리올 같은 적자 올림픽을 면하고 올림픽의 규모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결탁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상업주의에 의한 약물 중독의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처방을 제시하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면, 즉 상업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다면, 올림픽은 우선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고, 상업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몇몇 스포츠의 영웅도 사라질 것이다. 비온디를 통해 수영을 하고 루이스를 통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직접 놀이를 즐기며 진정한 놀이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릇된 종교적 경향들이 파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제 위치를 되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철저한 대안이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자'는 올림픽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따라서 바른 신관, 인간관, 사회관 등에 기초한 우리의 신령한 싸움은 스포츠와 올림픽에까지도 현실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슬러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할 것이다. 